【자유교회 소식】

1. 올해 우리교회 영적 목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2. 오늘 설교말씀은 둥지선교회 회장으로 사역하시는 정득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3. 부활주일 헌금($871.00)은 월례회에서 결정한 대로 전액 기독교윤리 실천운동(www.lacem.org)을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에 기부되었습니다.
4. Youth 및 청년 지방연합 수련회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가비:$100.00)
5. 이번 주 토요일 아침묵상은 안숙자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4월 가정예배 원하시는 가정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병환 중에 있는 분, 출타하신 분, 장기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880.00	
감사헌금:	$1,070.00	
주일헌금:	$40.00	
특별헌금:	$0.00	합계 $2,99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안혜미 집사
찬 양	Special Event	자 원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태복음 9:9-17**	인 도 자
설 교	**제사와 긍휼**	정득실 목사
찬송과봉헌	주만 바라 볼찌라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조병선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FFC와 연합)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Youth Group	매수 오후 7시(FFC Youth)

2016년 4월 10일 제2016-1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되는가 ◘

나는 노숙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교회에 설교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왜 그들은 노숙자가 되었는가" 였다.

나의 친구 하나가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수 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밥만 먹였을 뿐 그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그들이 왜 노숙자가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 한 채 변화 없는 그들에게 실망해서 그 사역을 때려치운 일이 내가 노숙의 근본 원인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우리들은 물 섧고, 낯설고, 언어가 다른 외국에 빈손으로 이민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제 나라 말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가? 이는 오직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도 극심한 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섰는데 저들은 왜 못하는가. 이는 오직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흑인들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부지런히 일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일이 아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들이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노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노숙자들과 이 사회와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 속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제도 하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노숙문제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노숙의 근본원인의 첫째로 꼽히는 것이 미국의 경제정책이다. 미국의 경제정책과 제도는 전례 없는 부와 함께 상대적으로 빈곤과 노숙자들을 생산해 내고 끝없이 커지는 빈부의 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 나라의 경제정책은 부자에게 많은 특권과 혜택을 부여하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정책이다." 라고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2013 년의 미국의 큰 주식회사의 중역(CEO)의 월급과 직공의 평균월급의 차이는 204:1이다.

납세정책이 빈부의 골을 넓히고 노숙자가 많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납세법 전문 변호사인 John Fox는 말한다.

"매년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세금제도는 빈부의 차를 점점 넓힌다. 어떤 산업체와 특정한 개인들에게는 수백만 불씩 빠져 나갈 틈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대중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높은 세금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세금제도가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세금을 강요한다고 믿는다. 중산층 납세자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불만이다"

고급 주택화는 노숙자가 갑자기 많아지게 된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한다. 말하자면 건축업자들이 가난한 지역의 낡은 주택들을 헐값에 사서 수리하여 고급주택으로 만들어 비싼 값에 파는 일을 말한다.

같은 방법으로 낡은 아파트 빌딩을 사서 수리하여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거기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고급주택으로 변질한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 졸지에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노숙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고용인이 생활해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이 천2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 지난 30년간 전국적으로 노동층의 빈곤이 70년대에 비해 42%가 늘어났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19인데, 시간당 그 두 배인 $18.58을 벌어야 방 두 개짜리 거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많은 노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해도 아파트를 얻을 수 없어 월급수표를 손에 쥐고 노숙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빈곤과 노숙을 만들어 내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과 우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다.

gbcseattle.com(시애틀미주복음방송)

김진숙 목사 컬럼에서 요약발췌